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인주¹, 임세미^{2*}

¹동강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Factors Influenc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In-Ju Jeong¹, Semi Lim^{2*}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a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G시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 1, 2학년 3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 교수-학생 상호작용 순이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48.4%였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학생,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334 students who were 1st and 2nd years in the nursing college in G city, from April 8 to May 13, 2019. These result were analyzed for significance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 regression from the SPSS program.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among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self-esteem, stress coping,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at stress coping and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predicts 48.4% in college adjustment.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encourage to cope with stress and improve the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in order to enhance college life adjustment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Self-esteem, Stress coping, College life adjust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 방향, 혼란을 겪으며 성인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있으며

[1], 가정으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독립과 함께 학업, 대인관계, 취업준비 등 자신의 결정과 책임이 따르는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2,3]. 특히, 간호학생의 경우 다른 학과의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많은 전공과목으로 인해 여유가 없이 과중한 학습을

*Corresponding Author : Semi Lim(nccsemi@gmail.com)

Received January 4,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February 23,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정해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학과 학생들보다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4]. 또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더 어려워지므로[5] 1, 2학년 때부터 대학생활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6].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 자퇴하기도 하고[7], 향후에는 신규간호사로 일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8]. 간호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이 어려운 상태에서 앞으로 임상실습을 접하게 된다면 대학생활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적응을 위해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9].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있다[10]. 교수-학생 상호작용이란 대학생이 대학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교수와의 학문적, 사회적 교류 활동을 의미하며[11],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13]. 또한 대학생들이 교수에게 느끼는 친밀감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의 신뢰 측면에서 능력보다는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친밀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0]. 또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14]와 회복탄력성[15]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6,17].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미래의 간호전문인이 될 간호학생에게 자아존중감은 중요하므로[18], 영향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포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자신의 스트레스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스트레스 대처 또한 간호학생이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이며[19],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개인의 스트레스 대

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대처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20].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학생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이는 대학생활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간호학생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지지[17], 전공만족도[9], 정서지능[8],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성[6], 자아탄력성[5], 임상실습스트레스, 대처방식[21],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22],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23] 등이 있었으나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1, 2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2학년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시 일개 대학 간호학과 1, 2학년 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였으며,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1개로 예상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178명이었다. 대상자 338명에게 수거한 설문지 중 설문지의 내용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하고 총 33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종교, 건강 상태, 친구와의 관계, 전공 만족도, 입학동기 등을 조사하였다.

2.3.2 교수-학생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Wubbels와 Levy[24]의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Han[2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친밀감과 신뢰감의 2개 하부요인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2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2.3.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26]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Kang[2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Kim[28]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존중,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의 4개 하부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2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4 스트레스 대처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29]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Kim[30]이 번역하고 요인 분석한 도구를 Hwang[3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감정완화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4개 하부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wang[3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2.3.5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Jeong과 Park[3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으로 총 5개 영역,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g과 Park[3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를 시행하기 전,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인 동의하에 시행되었다. 중도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개인적인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적응의 분석은 t-test와 ANOVA를 사용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265명(79.3%), 나이는 20~24세가 284명(85.0%)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202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 좋음 ' 이 151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친구와의 관계는 ' 좋음 ' 이 164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입학동기는 ' 높은 취업률 ' 이 134명(40.1%), 전공 만족도는 ' 만족 ' 이 147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69(20.7)
	Female	265(79.3)
Age	20~24	284(85.0)
	25~29	24(7.2)
)=30	26(7.8)
Religion	Christian	76(22.8)
	Catholic	29(8.6)
	Buddhist	26(7.8)
	None	202(60.5)
	Others	1(0.3)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79(23.7)
	Good	151(45.2)
	Moderate	92(27.5)
	Poor	12(3.6)
Relationship of friends	Very good	65(19.5)
	Good	164(49.1)
	Moderate	102(30.5)
	Poor	3(0.9)
Admission motive	Aptitude	85(25.4)
	Recommend	83(24.9)
	High employment rate	134(40.1)
	Others	32(9.6)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satisfaction	38(11.4)
	Satisfaction	147(44.0)
	Neutral	128(38.3)
	Non-satisfaction	21(6.3)

3.2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적응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는 5점 만점에 3.51±0.56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친밀감 3.29±0.60점, 신뢰감 3.73±0.60점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5점 만점에 3.44±0.50점,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5점 만점에 3.32±0.37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3.25±0.59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학업활동 3.76±0.65점, 개인심리 3.53±0.74점, 사회체험 3.02±0.84점, 대인관계 2.94±0.77점, 진로준비 2.93±0.81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Self-esteem, Stress coping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334)

Variables	Categories	M±SD	Mini	Max
PSR ¹⁾	Intimacy	3.29±0.60	1.00	5.00
	Trust	3.73±0.60	1.00	5.00
	Total	3.51±0.56	1.00	5.00
Self-esteem		3.44±0.50	1.52	5.00
Stress Coping		3.32±0.37	2.33	5.00
CLAS ²⁾	Interpersonal Relations	2.94±0.77	1.00	5.00
	Academic Activities	3.76±0.65	1.75	5.00
	Career Preparation	2.93±0.81	1.00	5.00
	Personal Psychology	3.53±0.74	1.00	5.00
	Social Participation	3.02±0.84	1.00	5.00
	Total	3.25±0.59	1.53	5.00

¹⁾Professor Student Relationship, ²⁾College Life Adjustment Scale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Table 3과 같다. 건강상태(F=14.631, p<.001), 친구와의 관계(F=25.509, p<.001), 입학동기(F=6.175, p<.001), 간호학과 만족도(F=25.71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검증결과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 매우 좋음 ' 학생이 ' 매우 나쁨 ' 학생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 매우 좋음 ' 학생이 ' 매우 나쁨 ' 학생보다, 입학동기에서는 ' 적성에 맞아서 ' 입학한 학생이 ' 높은 취업률 ' 을 이유로 입학한 학생보다, 간호학과 만족도에서는 간호학과에 ' 매우 만족 ' 한 학생이 ' 매우 불만족 ' 한 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34)

Characteristic	Categories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38±.64	1.199	.274
	Female	3.22±.57		
Age	20-24	3.24±.59	0.838	.502
	25-29	3.28±.75		
	>=30	3.22±.32		
Religion	Christian	3.22±.56	2.601	.036
	Catholic	3.44±.64		
	Buddhist	3.46±.76		
	None	3.20±.56		
	Others	4.15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a	3.55±.66	14.631	<.001 a)b)c)d
	Good ^b	3.26±.53		
	Moderate ^c	3.01±.51		
	Poor ^d	2.89±.36		
Relationship of friends	Very good ^a	3.67±.61	25.509	<.001 a)b)c)d
	Good ^b	3.27±.54		
	Moderate ^c	2.97±.47		
	Poor ^d	2.31±.55		
Admission motive	Aptitude ^a	3.44±.56	6.175	<.001 a)c
	Recommend ^b	3.21±.52		
	High employment rate ^c	3.15±.62		
	Others ^d	3.30±.45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action ^a	3.60±.57	25.711	<.001 a)b)c
	Neutral ^b	3.03±.49		
	Non-satisfaction ^c	2.56±.44		

3.4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r=.354, p<.001$), 스트레스 대처($r=.282, p<.001$), 대학생활적응($r=.42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대처($r=.330, p<.001$), 대학생활적응($r=.58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대처는 대학생활적응($r=.51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Self-esteem, Stress coping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334)

Variables	PSR	SE	SC	CAS
	r(ρ)	r(ρ)	r(ρ)	r(ρ)
PSR ¹⁾	1			
SE ²⁾	.354* <.001	1		
SC ³⁾	.282* <.001	.330 <.001	1	
CAS ⁴⁾	.425* <.001	.587* <.001	.515* <.001	1

* $p<.001$
¹⁾Professor Student Relationship, ²⁾Self-Esteem,
³⁾Stress Coping, ⁴⁾College Adjustment Scale

3.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건강상태, 친구관계, 간호학과 입학동기, 간호학과 만족도 변수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변수를 넣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건강상태, 친구관계, 간호학과 입학동기, 간호학과 만족도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61.433, p<.01$),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794-.849로 1.0이하, 분산팽창인자(VIF)는 1.178-1.25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133으로 2와 가까워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beta = .351, P=.020$), 교수-학생 상호작용($\beta = .172, P=.000$) 순이었고, 이러한 변수들은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을 48.4% 설명하였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adjustment (N=33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574	.380		6.770	.020*
Stress coping	.555	.068	.351	8.152	.020*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182	.037	.172	3.866	.000**
Adjusted R ² =.484, F=61.433, p<.001					

* $p<.05$,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토대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등[15]의 연구에서 3.77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와 Bong[33]의 연구에서 3.71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으나 사회, 공학, 자연, 의약 및 예체능 계열 학생들로 구성된 사립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won[34]의 연구에서 2.56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타계열 학생들에 비해 실습교육이 많은 간호계열의 특성상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 나타난 결과[22]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Yoo[16]의 연구에서 3.86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고, 간호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연구한 Choi등[35]의 연구에서 3.1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Oh[36]의 연구에서 2.65점, Jung과 Chung[17]의 연구에서 2.8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들이 간호학을 전문직으로서 가치 있게 여기며[37], 자신의 적성에 맞게 대학을 선택하였다는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38].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2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i와 Kim[39]의 연구에서 3.28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Shin과 Jung[40], Kim등[23]의 연구에서 3.07점, 2.15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의 경우 전체 성별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성별의 기질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 정도의 차이로 생각되며[39], Park과 Chung[41]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an[42]의 연구에서 3.27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고, Choi와 Park[43]의 연구에서는 2.96점, Cha[44]의 연구에서 3.18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으나 Choi와 Park[43]의 연구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Yang 등[45]의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3.34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입생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 등에 참여하는 시기이고 학업과 실습 및 취업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하부요인의 각 평균은 학업활동 3.76점, 개인심리 3.53점, 사회체험 3.02점, 대인관계 2.94점, 진로준비 2.93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중 가장 높게 나타난 하부요인은 학업활동으로 Han[4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학생에게 학업의 성취가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척도이며, 학업이 안정적일 때 개인도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다[23]. 하부요인 중 진로준비 점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대부분의 간호학생이 졸업 후 면허획득에 따라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건강상태($F=14.631, p<.001$), 친구와의 관계($F=25.509, p<.001$), 입학동기($F=6.175, p<.001$), 간호학과 만족도($F=25.71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양호할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하다고 스스로 인지할수록,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될수록 높게 나타난 Sim과 Bang[4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입학동기가 있고 간호학과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 결과는 Lee 등[47] 및 Kim과 Cha[4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생활적응($r=.425, p<.001$)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ong과 Chof[49]의 연구결과($r=.48, p<.01$)와 사립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Nam 등[50]의 연구결과($r=.483, p<.001$)와 유사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교수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갖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수와 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r=.587$, $p<.001$)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Oh[36]의 연구결과($r=.211$, $p<.001$)와 간호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Jung과 Chung[17]의 연구결과($r=.57$, $p<.001$)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는 대학생활적응($r=.515$,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대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23]의 연구결과($r=.404$, $p<.001$)와 동일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 교수-학생 상호작용 순이었으며, 이러한 변수는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48.4%($F=61.433$, $p<.01$)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Lim[51]의 연구결과와 Lee와 Yoo[5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대처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Lim과 Park[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무용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Do[53]의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하부요인별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2학년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 대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저학년일수록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수와 학생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G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간호학생 전체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자가보고형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추후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D. B. Kwon, Y. J. Oh, H. M. Park, J. J. Son & S. H. Song. (2002). An exploring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for college student's degree of education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0(3), 191-202.
- [2] H. S. Jang. (2013). The effects of self disclosure and empathy on stress percep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y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1(3), 5-28.
- [3] M. R. Kim & D. S. Hwang. (2005). Development of consumer satisfaction scale for the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6(3), 25-437.
- [4] H. J. Choi & E. J. Lee. (2012).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2), 261-268.
- [5] S. Y. Yun & S. H. Min.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395-403. DOI : 10.140/JDC.2014.12.12.395
- [6] H. S. Park & K. S. Jeong. (2013).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549-557.
- [7] L. Last & P. Fulbrook. (2003). Why do student nurses leave? Suggestions from a delphi study. *Nurse education today*, 23(6), 449-458.
- [8] H. T. Park.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576-1583. DOI : 10.5762/KAIS.2014.15.3.1576

- [9] S. O. Choi, J. K. Park & S. H. Kim.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182-189.
DOI : 10.597/jkasne.2015.21.2.182
- [10] E. I. Jeong & Y. H. Park. (2008). Relations among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9(1), 73-93.
DOI : 10.15753/aje.2008.9.1.004
- [11] J. I. Hong & S. H. Ba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of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3(3), 351-379.
- [12] J. H. Lyu. (2014). Mediation effect of professor intimacy and moderation effect of professor expertise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ollege adaptation.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4(2), 21-37.
- [13] J. N. Kim & H-W. Cheo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Journal of The Korean Food Service Association*, 9(3), 81-92.
- [14] M. K. Cho & M. Y. Kim. (2017). Effects of learner motivation and teacher-student interaction on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468-477.
DOI : 10.5392/JKCA.2017.17.04.468
- [15] H. J. Lee, H. Y. Lee & K. J. Kang. (2017). The effect of clinical performanc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ty up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1), 425-437.
DOI : 10.21097/KSW.2017.02.12.1.425
- [16] H. Y. Yoo. (2020).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self-estee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pre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0(4), 639-647.
DOI : 10.5392/JKCA.2020.20.04.639
- [17] H. J. Jung & H. I. Chung. (2012).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3), 188-196.
- [18] S. Sasat, P. Burnard, D. Edwards, W. Naiyapatana, Y. Hebden, W. Boonrod & W. Wongmak. (2002). Self-esteem and student nurses: a cross-cultural study of nursing students in Thailand and the UK. *Nursing and Health Science*, 4(1-2), 9-14.
DOI : 10.1046/j.1442-2018.2002.00095.x
- [19] H. Y. Kang & E. Y. Choi. (2015). Stress, stress coping methods.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behavioral style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1(3), 289-297.
DOI : 10.5977/jkasne.2015.21.3.289
- [20] K. S. Han. (2017). The moderating effects of flo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18(5), 490-496.
DOI : 10.5762/KAIS.2017.18.5.490
- [21] J. W. Lee & Y. S. Eo. (2013).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2), 125-134.
DOI : 10.12811/kshsm.2013.7.2.125
- [22] K. M. Lim & J. H. Park. (2018).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195-205.
DOI : 10.5762/KAIS.2018.19.9.195
- [23] J. K. Kim, W. J. Kim & S. J. Lee. (2020).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7), 120-126.
DOI : 10.5762/KAIS.2020.21.7.120
- [24] T. Wubbels & J. Levy. (1991). A comparison of interpersonal behavior of dutch and American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1-18.
- [25] S. Y. Han. (2009). *The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dance ability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ungnam.
- [26] S. Coopersmith.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F: Freeman & Co.
- [27] J. G. Kang. (1986). *The influence of self-concept,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areer aspi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8] J. E. Kim. (2010).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and educational faith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 [29] R. S. Lazarus &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30] J. H. Kim. (1985). Construct factors of stress coping scal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 37-43.
- [31] Y. K. Hwang. (2013).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mpus life satisfaction, stress perception and stress coping style of rural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nam.
- [32] E. I. Jeong & Y. H. Park.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69-92.
- [33] E. S. Lee & E. J. Bong (2017).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2), 107-114.
- [34] D. H. Kwon. (2017). *The effect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upon academic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35] S. Y. Choi, M. R. Yoo & M. J. Lee.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adets' life adjustment, stress,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in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32(1), 1-13.
- [36]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DOI : 10.5392/JKCA.2014.14.10.873
- [37] T. A. Iacobucci, B. J. Daly, D. Lindell & M. Q. Griffin (2013).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and ethical confiden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20(4), 479-490.
- [38] Y. K. Cho (2014). Effects of self-esteem, radiological technologist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radiologic scienc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283-293.
- [39] Y. S. Choi & M. Y. Kim. (2020).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stress coping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7), 109-119. DOI : 10.5762/KAIS.2020.21.7.109
- [40] S. J. Shin & M. S. Ju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7(5), 441-455. DOI : 10.22143/HSS21.7.5.23
- [41] J. A. Park & M. J. Chung. (2001). Relationships between strategies for coping with stress and behavior problems in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3), 107-122
- [42] J. S. Han. (2015).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459-4466. DOI : 10.5762/KAIS.2015.16.7.4459
- [43] J. Choi & M. J. Park. (2013).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7), 339-349. DOI : 10.5392/JKCA.2013.13.07.39
- [44] N. H. Cha.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7(2), 124-131. DOI : 10.12799/jkachn.2016.27.2.124
- [45] K. H. Yang, J. R. Le & B. N. Park. (2012).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5-13. DOI : 10.5977/jkasne.2012.18.1.05
- [46] S. Sim & M.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642. DOI: 10.5762/KAIS.2016.17.12.634
- [47] G. W. Lee, I. O. Moon & S. K. Park.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4(2), 15-27.
- [48] G. M. Kim & S. K. Cha. (2013)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college student adjustment in freshma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 322-332.
- [49] Y. J. Song & G. P. Cho.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34(4), 61-67.

DOI : 10.2327/kei.2016.34.4.

- [50] M. W. Nam, H. D. Lee & E. J. Baik. (2016).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of influential factors on academic dropout intention of local university freshmen.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35(4), 147-174.
- [51] M. K. Lee & S. H. Lim. (2017).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burnout, stress coping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6), 521-534.
DOI : 10.14257/ajmahs.2017.06.74
- [52] N. H. Lee & S. Y. Yoo. (2017). Influence of communication styles and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Academy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 20(2), 58-66.
- [53] J. N. Do. (2017).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dance on their school life.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34(4), 69-82.
DOI : 10.21539/Ksds.2017.34.4.69

정 인 주(In-Ju Jeong)

[정회원]



- 2009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4년 4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간호교육
- E-Mail : foreverinju@daum.net

임 세 미(Semi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2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6년 9월 ~ 2019년 8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1년 4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nccsemi@gmail.com